

기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만드는 안전한 일상

화재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상당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다. 비상구를 잠가두거나, 소화기 앞에 물건을 쌓아두고, 스프링클러 전원을 임의로 차단하는 행위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위급한 순간에는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다. 이 제도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발견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이를 확인한 뒤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속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를 통해 안전을 완성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불법행위는 '순간'이 되고, 사고는 '순간'에 발생한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불법행위는 비상구와 피난통로 관리 소홀이다. "잠깐이니깐 괜찮겠지", "오늘만 막아두자"라는 생각이 쌓여 어느새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화재 발생이라는 단 한 번의 순간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과거 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야간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비상구 앞에 적치된 물건 때문에 대피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 조사 결과 "연기 확산이 조금만 더 빨랐어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사실은 이전에 시민 신고로 비상구 관리 위반이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신고가 없었다면 위험은 그대로 방치됐을 것이다.

신고포상제는 처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신고포상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감시'나 '고발'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다. 목적은 오직 예방이다. 불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바로잡고, 더 큰 사고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시민 신고를 계기로 현장 점검과 안전지도가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전통시장에서는 과거 시민 신고로 소화기 적치 불법행위가 시정된 이후, 실제 화재 발생 시 상인이 즉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한 번의 신고가 수많은 피해를 막은 셈이다.

시민이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본다. 소방관이 모든 현장을 상시 점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시민은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위험을 발견한다. 출근길에 본 막힌 비상구, 장사를 준비하며 본 방화문 고정, 창고 한켠에 가려진 소화기. 이 모든 장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이다.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다. 119 또는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조례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허위나 중복 신고는 제외되는 등 공정성도 함께 담보하고 있다.

한 건의 신고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한 가족의 일상을 지킬 수 있다. 시민의 용기 있는 신고가 곧 우리 모두의 안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안전한 일상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위승빈

"모두가 오래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아무도 늙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나 용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미국 건국의 국부이자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다. 정확한 말이다. 오래 살게 되면 누구나 늙지 않을 수 없다. 장수와 동안을 함께 가질 수는 없단 말이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실수투성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자위하면서 타인의 실수는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용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참으로 극단적 개인 이기주의의 발로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진정한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저티 담배를 가져오는 학생들도 있다. 물론 발견 즉시 압수한다. 하지만 그런다고 안 피우겠는가. 대부분의 경우는 흡연이 평생 지속된다. 금연하게 될 때는 아마도 중병에 걸렸거나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때일 것이다. 이처럼 한번 잘못 길들여진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 그렇게 만든 장본인은 역설적이게도 기성세대들이다.

아이를 가나 흡연과 음주가 난무한다. 요즘에야 금연구역이 있고 음주로 사고를 칠 경우 벌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왔다. 물론 지금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규제가 심하지는 않다. 흡연의 경우를 보보자. 어렸을 때부터 학습

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삼촌 등 바로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피워댔기 때문이다. 음주 역시 고주망태가 되어 추태부리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에게 비 발표를 전제로 가족·교사·학교에 대한 불만을 각각 5가지 정도 쓰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온다. 우선 가족에 대한 사항을 보면 "한번 묻기 시작하면 집요하게 수사하듯 묻는다. 큰 사람과 비교하며 나무란다. 화부터 낸다. 부모가 집에 관심이 없다. 한번 잘못 하면 옛날 것부터 들먹인다." 등이다. 교사나 학교에 대한 불만 사항도 "도덕 선생이 도덕적이지 못하다. 본인은 실내화 신으면서 학생들은 못 신게 한다. 조금

만 잘못해도 징계한다고 한다. 차별 대우한다. 교육적이지 못하다. 대화가 안 된다. 망때린다. 눈치가 없다." 등등이다. 이 건 순화해서 일부만 기록한 것이다. 어린 학생들도 핵심을 꿰뚫고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무조건적인 위압적 행태만으로는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없다.

필자가 보통 오전 정도 교육을 하고 나면 아이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교육 진행 중, 강점을 찾아내 칭찬해주기 때문이다. 일명 칭찬요법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은가. 아무리 문제아라 해도 분명히 강점은 있다. 하지만 칭찬도 길면 잔소리가 된다. 짧게 하되 적절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감성이 필요하다. 자제가 좀 흐트러져도 그냥 넘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성세대들도 대부분 아이들과 같은 시행착오를 어렸을 때 거치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기성세대 눈높이에서만 대하면 해결점이 없다. 상태만 더 악화시킬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진정한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겨울철 전기 사용, 안전이 따뜻함을 지켜줍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기히터와 전기장판, 열선 등 전기난방기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방용품은 겨울철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만, 사용 환경에 따라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 전기화재는 대부분 일상 속 작은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래 사용한 전기제품이나 전선 상태를 미처 살피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용 전 외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상이 느껴질 때는 잠시 사용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기난방기기를 장시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 전원을 꺼 주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전기장판 역시 올바른 사용이 중요합니다. 접힌 상태로 사용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면 내부 열선이 손상될 수 있어 주

의가 필요합니다. 보관할 때는 말아서 두고, 온도는 생활에 불편하지 않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보다 안전한 사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화재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전열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전기 사용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의 멀티탭에 많은 제품을

연결하면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력 소모가 큰 기기는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류 차단 기능이 있는 멀티탭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난방기기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사용하고, 평소와 다른 점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화재 위험은 충분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용역물은 따뜻함과 함께 안전도 함께 지켜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당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정호

오늘의 운세 2026년 1월 7일 수요일 (음력 11월 19일)

Grid of horoscope predictions for various zodiac signs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with corresponding animal icons and text.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and addresses.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